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문재활병원 전주에 온다

복지보 공모에 예수병원 선정  
총 460억원 투입 병원 부지에  
150 병상 규모 재활병원 건립  
전북도내 장애인들 대상으로  
전문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



전주예수병원 전경.

(사진=전주예수병원 제공)

전북지역 장애인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병원이 전주에 들어선다. 전주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에서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파트너로 전주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국비 135억원과 지방비 135억원, 예수병원 자체부담 190억원 등 총 460억원을 투입해 예수병원 1만1000㎡ 부지에 지하3층, 지상5층, 150병상 규모의 전북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하게 된다. 전북권 공공재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한 전북권역 재활병원이 들어서면 척수손상재활, 뇌손상재활, 소아재활, 근골격계 재활, 기타재활 등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해진다. 특히 2차 장애와 후유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구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재활병원 건립 파트너로 예

수병원을 선정해 유치에 적극 노력해왔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권역별 재활병원은 민간 부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활서비스를 보강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진료기회를 확대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갑작스레 내린 비... 한옥 처마 밑에서 비 피하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비를 피하고 있다.

전주시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한 12일 오후 전주한옥마을을 남천교 천연루 처마 밑에서

## 반도체 기계 대표 기업, 익산 산단에 오나?

뉴파워프라즈마, 정현울 시장  
제2산단 내 조기투자 요청에  
"그룹 제2 도약에 협조해달라"



핵심공정 플라즈마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로 도약하고 있는 전문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업체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1300억원에 육박하며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유리섬유 생산시설을 갖춘 (주)한국화이버를 인수하기도 했다. 업체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화이버와 협업을 통해 탄소 사업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 업체는 지난해 매입한 제2산단 내

넥솔론 부지를 활용,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익산 공장에서는 반도체 설비 및 태양광 모듈, 탄소복합재 소재 파이프 등 기술 집약 제품을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한 최첨단 기술력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세계 일류 종합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정현울 시장은 "1200여개의 특허를 보유한 뉴파워프라즈마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최첨단 기술산업 투자를 익산에 결정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속히 정착해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16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신문은 17일 발행합니다.

## 군산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

군산시는 문화재청과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등 원도심 일원 등록문화재에서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이뤄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의 꽃인 학술세미나 및 기념식은 문화재청장, 행정부지사, 부의장 등 귀빈들을 초청해 진행됐다. 오후 2시에 진행되는 학술세미나는 이광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근대의 기억과 등록문화재란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 실시됐다. 오후 5시에 진행된 기념식은 문화재청장, 전북도 행정부지사, 부의장, 군산시장 등이 참여해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기념식 역사 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군산=한경봉 기자

##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아라

강원 고성 양돈농가 모돈에서 '양성' 확인 현재까지 18건 발생  
도, 도내 농가 방역실태 점검·8대 방역시설 설치 조사 병행

최근 강원도 고성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지역 반출입 금지와 농가 방역실태 점검 등 감염원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강원도 고성 양돈농가 어미돼지(모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전국 확진 사례는 돼지농가 18건, 야생멧돼지 1,518건이다. 이에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보를 SMS(문자) 등을 통해 농가에 신속히 전파했다. 돼지관련 농장 종사자나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8월 6시~10일 6시, 48시간)도 긴급 발령했다. 명령위반 의심차량은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발생·위험지역인 경기, 인천, 강원지역 3개 시군 돼지의 생축·정액·분뇨·사료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농장 사육돼지, 축산시설, 포획 멧돼지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왔다. 아직까지 바이러스 검출 사례는 없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자체적으로 7월 20일부터 5주간 도내 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농가별 축산차량출입 통제와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입출하대, 물품 반입시설,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등 8대 방역시설 설치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모돈사(어미돼지 축사) 외부인 출입금지, 손수레·삼 등 기자재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유호성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